

인구주택 총 조사를 통해 본 충남의 인구변화 분석

2010-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본 충남의 인구변화를 총인구, 성·연령, 인구고령화, 부양비, 성비, 외국인 인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.

1. 총인구 규모 및 변화

- 2015년 충남인구는 2,107,802명으로 9개 도(道)중 경기, 경남북에 이어 4번째이며, 2010-2015년 인구증가율은 3.9%로 9개 도 가운데 5위를 기록(16개 시도 평균은 5.15%임).
- 2010-2015년 충남 시군별 인구증감률은 당진시가 19.5%, 아산시 14.8%, 홍성군 13.6% 증가한 반면, 공주시는 -7.0%, 계룡시는 -5.5% 감소하였음.



2. 성별·연령대별 인구

- 2015년 충남의 중위연령은 41.6세이고 여자 43.1세(전국 42.4세), 남자 40.3세(전국 41.2세)로 2010에 비해 2.5-2.8%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.
 -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이 높고, 남성은 낮음.
- 2015년 충남의 15-64세 인구비중(생산가능인구)은 여성 66.5%, 남성 71.9%로 남성이 높은 반면, 65세 이상 인구비중(고령인구)은 여성 19.3%, 남성 13.3%로 여성이 높음.
 -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남녀 모두 생산가능인구는 낮고, 고령인구는 높아 경제 및 사회활력의 저하요인으로 작용

3. 인구고령화

- 2015년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15.7%로 전국 13.7%에 비해 높은 고령사회, 특히 군지역은 26.6%의 초고령사회임
- 청양군, 서천군은 30% 이상의 초고령사회인 반면, 천안시, 아산시, 계룡시는 10% 전후의 고령화사회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 고령화 수준이 확연함.

4. 인구부양비

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2015년 시군별 총부양비는 2010년에 비해 0.3% 감소하였음. 총부양비의 감소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년 부양비의 증가에 기인함.
- 충남은 유소년부양비 증감률(-2.8)이 노년부양비 증감률(0.4)보다 커서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저출산의 문제가 고령화보다 더욱더 빠르게 진전됨을 알 수 있음.

5. 남녀 성비

- 충남은 남성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,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여성이 많고, 핵심노동인구(25-54세)는 남성이 많음.
- 2010년에 비해 충남 북부권, 보령시, 논산시, 금산군을 중심으로 남초현상이 확산되고 있음.

5. 외국인 인구

- 충남의 외국인 인구증가율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4위이며, 천안시와 아산시 등 북부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음.
- 전국대비 충남의 외국인 증가율이 높고, 군지역보다는 시지역의 외국인 인구 증가율이 높음.
 - 외국인 증가율이 높은 시군은 태안군(539/1%), 서천군(406.5%), 보령시(336.5%) 등의 순임.